

사회

갈곳 없어 방학이 괴로운 장애학생들 하루 종일 집에서 TV·컴퓨터만...

부모들도 돌보기 부담... 방학지원 프로그램 확대 절실

지적장애 2급인 김석현(14·가명)군은 방학만 되면 갈 곳이 없다. 학기 중에는 장애인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지난 7월 21일 시작해 이달 말 끝나는 방학 동안에는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한다.

김군과 단둘이 살고 있는 아버지(40)가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가게 되면 마땅히 김군을 돌볼 줄 사람이 없다. 그나마 방안에 놓인 오래된 컴퓨터 한 대가 김군의 유일한 친구다.

16일 오후 1시 광주시 북구 두암동 김군의 집. 9.9㎡ 크기의 방 한 칸에서는 김군이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옆에는 뿔부스레기와 유유패이 퐁퐁고 있었다.

김군은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많았다. TV 앞으로 향했다. 리모컨을 계속 돌리던 김군은 이내 흥미를 잃고 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다. 김군은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많았다. TV 앞으로 향했다. 리모컨을 계속 돌리던 김군은 이내 흥미를 잃고 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다.

기초수급대상자인 김군은 방학 동안 한 달에 15~25만원을 내야하는 주간보호시설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 광주에는 지적장애아동들이 방학 중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14곳. 구별로는 서구 6곳, 북구 3곳, 남구 2곳, 광산구 2곳, 동구 1곳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한 달 평균 2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저소득층 장애가정에 있어선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방학을 집안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날 오후 3시 남구 월산동 박모(여·47)씨의 집 안방. 박씨의 딸 이가람(12·가명)양은 지적장애 1급이다. 이양은 일반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지만, 방학 동안에는 집에서 하루종일 TV를 보며 지낸다.

어머니 박씨 또한 방학 중에는 식당일을 접고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몸이 불편한 딸을 집에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지적장애 3급인 박씨는 남편과 5년 전 사별한 뒤 식당에서 일을 하며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에는 지적장애인협회와 지원을 받아 딸을 주간보호시설에 보낼 수 있었는데, 올해는 돈이 없어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방학 중에도 돈 걱정 없이 딸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 서미정 회장은 "저소득층 장애아동들을 위한 '장애학생 방학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인원이 200명으로 한정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 장애아동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과 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광주의 특수교육대상인 장애학생은 모두 236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각각 장애학생 1142명, 266명이 배치돼 있으며, 나머지 장애학생 952명은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16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사는 이가람(12·가명·지적장애 1급) 양 집 안방. 이양은 방학 동안 오갈데 없이 집안에서 TV만 보며 생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0년간 병·의원 급증 광주 28%·전남 18%

한의원은 광주 137%·전남 89%나 늘어

광주·전남지역 일반 병·의원과 한의원이 매년 증가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아졌으나 과열경쟁으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의 병·의원과 한의원은 2010년 6월 현재 모두 6077곳으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1214곳이 늘어났다.

최근 3~4년 동안 지역 인구는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 상당수 병의원들이 환자 유인을 위해 대형화와 고가 의료장비 구축에 나서는 등 출혈경쟁이 이어지면서 휴폐업하는 병의원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0년 6월말 현재 등록된 광주지역 병의원은 2393곳으로 10년전 1871곳에 비해 27.9%가 증가했다. 또 전남지역도 10년 사이 2593곳에서 3066곳으로 18.2% 늘었다.

특히 광주지역 한의원은 10년 전 128곳에서 304곳으로 137%나 증가했으며, 전남은 171곳에서 314곳으로 88.6% 늘었다.

전국적으로 의사는 2000년 대비 48.0%, 치과의사 42.8%, 한의사 81.3%, 약사 16.7%, 간호사 7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등 매년 의료 인력의 공급이 증가세에 있어 병의원이나 한의원 등 의료 시설의 경영난 문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장기요양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요양병원 개설허가 기준의 완화 등으로 인해 병의원을 늘었다"며 "특수·고가의료장비 증가도 고려해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검사진단 수요증가와 고가첨단장비 선호경향, 요양기관들의 환자유치 경쟁 등 복합요인에 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원침 (8095) 김중두



'고데구리' 조업 40대 선장 입건

여수해양경찰은 16일 상습적으로 속칭 '고데구리' 조업을 한 2급 연안복합어선 A호 선장 김모(40·고흥군) 씨를 수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 김모(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고흥군 도양읍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어구를 이용해 260차례에 걸쳐 사대과 낙지 등 1억8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원 김씨는 불법 조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30%를 챙긴 혐의다.

속칭 '고데구리'로 불리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코가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 치어까지 닦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어법으로, 어족자원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금지돼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車 번호판 떼이자 남의 것 달고 운행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압류된 20대가 남의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부착하고 다니다 경찰서행.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최모(20)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7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해 있던 김모(36·부산시 남구)씨의 옵티마 차량 등 2개의 번호판을 떼어낸 뒤 자신의 매그너스 차량에 달고 운행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6개월 간의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압류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과태료 낼 돈이 없었고, 내 차를 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앗!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철없는 10대 오토바이 흠쳐

서해안고속도로 20분간 질주

환경경찰은 16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김모(16·무안군 삼향면)군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4일 오전 6시20분께 함평군 함평읍 N아파트 주차장에서 정모(43)씨의 125cc 오토바이를 훔쳐 서해안고속도로 함평~목포간 15km 구간을 20여분 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절도 전과 5명인 김군은 전남 친구 2명과 함께 함평에 갔다가 용돈이 떨어지자

집에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훔친 뒤 고속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1km 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무너져 상해에서 휴진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김군을 붙잡았다.

김군은 경찰에서 "집에 빨리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탔는데,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는 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범원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84억 배상 판결

지난 1980년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범원이 8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6일 '진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석달운(77)씨와 가족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83억7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중앙정보부는 불법 체포와 고문 등을 통해 석씨 등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피해자가 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손해배상 청

구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석씨 등이 범원의 무죄판결 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요건인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석씨 등은 지난 1981년 월북 후 간첩으로 남파된 박모씨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진도 일대 바닷가 경비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1980년 8월께 석씨의 고종사촌형인 박씨가 우리나라에서 공작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석씨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간첩의 '명예'를 씌웠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벌 조심"

순천서 60대 쏘여 숨져

16일 오전 9시30분께 순천시 송광면 모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조모(67)씨가 벌에 쏘여 인근

보건소로 옮겨지는 도중 숨졌다. 경찰은 "남편이 벌침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데, 귀 아래 목 부분에 쏘였다"는 조씨 아내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3분 / 해질 19시 19분 / 달돋이 13시 49분 / 달질 23시 44분

우산 챙기기
흐리고 비가 온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25/30℃
목포	흐리고 비	25/29℃
여수	비온 뒤 맑음	25/29℃
완도	비온 뒤 맑음	25/31℃
구례	흐리고 비	24/31℃
해남	비온 뒤 맑음	25/31℃
장흥	비온 뒤 맑음	25/31℃
곡성	비온 뒤 맑음	25/30℃
순천	비온 뒤 맑음	25/30℃
영광	흐리고 비	24/30℃
전도	비온 뒤 맑음	25/31℃
전주	흐리고 비	24/29℃
남원	흐리고 비	23/30℃
옥산도	흐리고 비	23/2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5/32	24/32	25/33	25/33	25/32	25/32

자이언트 골프존

자이언트 골프존

자이언트 골프존

GOLFZON

광주 최고시설 스크린골프장

자이언트 골프존